

보도자료

《남동아시아 오역하기: 7개의 구멍》 (*Mistranslating Southeast Asia: the Seven Holes*) 개최



- ◆ **일시** 2024년 5월 15일 - 6월 1일. 수-토, 12-8pm
-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을지로18길 25-2 인현빌딩 303호
- ◆ **오프닝 행사** 2024년 5월 18일, 토, 4pm
- ◆ **연구 & 기획** AS(조현아, 문혜인)
- ◆ **입장안내** 평일 6시 이후, 토요일 종일 철문이 닫혀있습니다. 건물 우측 하단의 작은 입구를 이용해주세요.

- ◆ 컬렉티브 AS의 첫 전시로, 1년간 지속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동남아시아 미술과 미술사 재해석하기를 제안한다.
- ◆ 전시는 연대기와 한국어 번역본으로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사를 조망하고, 이에 관한 꾸준한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 ◆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내부에서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는 시각예술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꾸준히 언급하고 번역하기를 목표한다.
- ◆ 전시는 동시대 시각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로 대안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 ◆ 연구 과정에서 찾아낸 ‘식민 · 현대 · 영어 · 시대 · 기술 · 종교 · 추정’이라는 7개 구멍을 문제점이자 실마리로서 제안한다.
- ◆ 서구와 일본을 포함한 국가의 식민통치로 동남아시아로 이식된 구멍을 현지 예술과 생활을 통해 탐구하며, 이후 한국 미술계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다.
- ◆ 서울에서 열린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AS는 2024년 하반기 일본의 아시아미술 아카이브 현장 연구를 지속해갈 예정이다.

서울, 2024년 4월 28일 — AS(문혜인, 조현아)는 을지로에 위치한 공간 3Q에서 전시 《남동아시아 오역하기: 7개의 구멍》을 선보입니다. 두 명의 연구자는 근현대 동남아시아에서 생성된 미술작품 및 미술사를 재편한 10편의 번역문을 제시하고, 동남아시아를 파괴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미술에 수용되었던 일곱 가지의 개념을 ‘구멍’으로 설정해 탐구한 1년간의 시도를 공유합니다. 전시는 5월 15일 수요일 개막하며, 오프닝 행사는 5월 18일 4시부터 시작합니다.

옛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을 동남아시아로 치환하여, 이곳에서의 삶과 예술에 지속적으로 구멍을 뚫은 식민 · 현대 · 영어 · 시대 · 기술 · 종교 · 추정에 따라 역동했던 미술사를 살펴보는 전시는 이제까지 한국 미술계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으나 존재감이 적었던 동남아시아 미술에서 발원한 공통된 주제를 찾아봅니다. 번역문과 AS의 기고문은 전후 국가 건설과 형상 제작에 기여했던 예술가들의 시도와 국제적인 무대로 나아가려는 다양한 각국 엘리트들의 움직임,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과 강대국의 자본에 흔들리는 문화적 풍토를 짚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가 벌여보는 ‘구멍’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현대 시각문화의 개진을

주창했던 개인과 집단이, 역으로 숨을 쉬게 된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AS는 《남동아시아 오역하기: 7개의 구멍》에서, 남동아시아에게 주어진 치명적인 생존 조건이었던 동시에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견인해온 구멍들의 모순적인 역할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식민 제국을 기준으로, 그들의 남동쪽에 위치한 아시아의 영토에서부터 약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전시는 동남아시아 예술계의 관점과 서사가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계속 몸집을 불러왔음을, 또한 불리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다시 공표합니다. 이때 AS는 오역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여상한 짝꿍의 동세로 여기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술사적 배움과 정보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더불어 《남동아시아 오역하기: 7개의 구멍》은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인식되어온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역사적인 질곡을 대면했는지를 알아내며, 아시아 내부에도 분명히 뿌리내린 상업주의적이고 식민지적인 시각을 반성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읽기의 환경을 조성하는 ‘열대의 서가’에는 현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역사와 미술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학 작품과 참고문헌, 조현아와 문혜인의 에세이가 놓였습니다. 전시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예술에 대한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만들기과 대안적인 아카이브 설립을 모색하는 방법을 거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S는 함께하는 오역에서, 동시대 미술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전시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전시 서문, 10편의 한국어 번역본은 A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경 사진은 추후 업로드 예정이며, 이미지 사용시 캡션 명기를 요청드립니다.



AS

AS는 문혜인과 조현아로 이루어진 스터디 및 큐레토리얼 콜렉티브입니다. AS는 서구 미술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권 미술교육을 받은 두 명의 연구자가 자력으로 동남아시아 시각예술사 재서술을 시도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남동아시아 오역하기: 7개의 구멍》 이후 AS는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던 8개국 및 지역(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홍콩 · 필리핀 · 미얀마 ·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등)이 식민과 전쟁, 독재의 역사를 거치며 발전시킨 시각예술이 우리의 ‘정규’ 미술사 교육에서 누락된 정보임을 인지하고, 근과거의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는 미술작품과 전시 · 기록물을 살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일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인: haynmoon@gmail.com

조현아: hyunayeo@gmail.com / whgusdk101@naver.com